

위원장님 인사말씀

2016. 02. 04.

금 융 위 원 회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업계에서는 ‘절절포 토론회’ 라고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려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여러분의 그간 금융개혁 노력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품과 사업이라는 최종 결과물로 꽃 피우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토론회가 맞습니다.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님!

그리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임직원 여러분!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15년의 성과 정리

지난 한 해 우리는
금융개혁이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달려왔습니다.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금융현장 일선의 민원상담인과 실무직원들,
우리 경제 최전선의 중소기업인과 청년창업자,
가정을 지키는 주부까지,

금융개혁이라는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금융권이 합심해서
3,575건의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 중 45%를 실제 개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자료집에 있습니다.
보험업권 내용만 모아도
1,300페이지의 두꺼운 책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신 덕분에
금융개혁이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알찬 내용으로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료집을
금융회사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3. 2016년은 열매를 거둘 시기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순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린 금융개혁이라는 그림이
높은 회랑의 예쁜 액자에 걸려 있다면,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시듯,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그간 금융개혁 추진과정을 통해
선진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양을 다지고 씨앗을 뿌렸다면

올해는 씨앗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보살피서
궁극적으로는 그 과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정책 반, 홍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금융이 이렇게나 빨리, 많이,
나아지고 있구나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 번 금융개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금융 상품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홍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그 자체가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에 딱 맞춘 보험상품,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편리한 카드와 같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금융개혁이라는 “관념”을
국민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시현해내야 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자료집이라는 중간재가
구체적 사업, 상품이라는 최종재로 탄생하여야
비로소 우리가 지향하는 금융개혁이 완수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업화 · 상품화 사례 (예시)

- ❶ 비대면 실명확인 개시 및 무인스마트 점포를 통한 금융거래 실시
- ❷ 무해약환급금(또는 저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을 종신보험까지 확대한 상품 출시(“용감한 000 종신보험”)
- ❸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출시(6개사 19종 모바일 카드발급)

4. 창조와 혁신을 위한 노력 필요성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방울의 땀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금융개혁의 가능성이 도처에 퍼져있습니다.

수많은 금융규제들이 정비되고 있고,
핀테크,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창조의 씨앗은 뿌려 졌으나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분야가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먼저 기회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고,
그 과실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문화를
금융권 전반에 확립해야 합니다.

5. 창조와 혁신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지원

금융당국도 동참하겠습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금융권 성과주의의
핵심목표를 ‘혁신’에 두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꽃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독려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인사, 보수, 교육, 평가 전반에서
신상품 개발 및 신사업발굴에 기여한 부서와 인재를
존중받으며 널리 쓰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개혁상을 신설하여 수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실무직원에게는,
연말에 제가 직접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16.12월 현장점검성과보고회 시 위원장 표창·골드메달 수여

많은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규제개선·제도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알림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금융 등 개혁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6년 상반기, ❶ 모든 건의과제를 업무 유형에 따라 코드화·분류하여 공개
❷ 지역민, 지역금융회사에 대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운영

새로운 사업, 상품이 발굴될 것이라고 기대한 자리에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또, 그 원인이 당국에게 있다면,

필요한 추가개선과제가 무엇인지,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게 없는지,

정확히 분석하여 얼마든지 A/S 해드리겠습니다.

* '16년 하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개혁의 현장착근여부를 A/S하여 기초치된
정책의 미세조정·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또한 현장점검반에서

한번 수용하지 못하였던 건의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 등 재차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금융개혁의 소중한 재료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 '16년 하반기,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 개최

이를 통해 금융개혁이

우리 경제 전반의 창익과 혁신을 꽃 피우는데

좋은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마무리 말씀

우리는 몇 년에 걸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지난 한 해에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금융은 진정 달라졌는가?”라는
냉정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많은 시도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대내외 여건 때문에 어려웠다는 핑계를 찾기보다,

필요한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쏟아 부어
마침내 국민들이 만족하는
금융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결과로
우리의 노력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이성, 더운 가슴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가운 금융은 차가운만큼 더욱 똑똑하게
따뜻한 금융은 소외된 계층 없이 전국 모두 따뜻하게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 후세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함께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